

불교 잡지 부흥 선행과제 ‘콘텐츠 가공 능력’ 배양

[기획] 불교계 잡지 진단과 과제

월간 <불광>이 오는 6월 불교잡지 사상 최초로 지령 500호를 맞는다. <불광> 지령 500호란 경사에도 현재 불교 잡지계의 상황은 암담하다. 이에 불교 잡지계에서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역량 배양에 불교계 안팎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잡지업계 전반 매출 하락세

<불광>은 1974년 창간된 이후 휴간 없는 대표적인 불교잡지로 자리매김해왔다. 하지만 이런 <불광>조차 수년째 부수는 정체된 상황이다. 인터넷 미디어의 성장으로 출판인쇄업이 전반적으로 쇠락하는 것이 그 원인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월 5일 발표한 '2015 잡지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잡지계 매출은 지속적인 하락세다. 2014년 잡지산업 전체 매출은 1조 3754억 원으로 2013년에 비해 2173억 원 감소했다.

잡지사의 평균 매출액은 2013년 6억 3480만 원에서 2014년 5억 4820만 원으로 8660만 원이 감소했다. 2011년 16억 6,920억 원, 2012년 18억 8,500만 원과 비교 할 때 1/3 이하로 감소한 것이다.

매출감소는 '서점' 판매가 급감한 것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이제 서점에서 예전처럼 잡지가 팔리지 않는다는 말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 산업 현황 통계'의 잡지류 도매업 매출을 보면 2009년 3조 1565억 원에서 2010년 2조 9632억 원, 2011년 2조 8836억 원으로 연평균 5%씩 감소했다.

이에 대해 류지호 불광미디어 대표는 "잡지 반쯤을 많이 배포하면 많이 팔리던 시대였지만 이제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에 대응해 잡지계는 온라인 판매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진흥원 통계에서 온라인 유통 매출은 2009년 682억 원에서 2010년 792억 원, 2011년 1047억 원으로 매년 24%씩 증가하고 있다. 또 디지털 유료화에도 추진 중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 '2015 잡지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잡지업계 중 디지털 서비스를 하는 곳은 53.8%로 이중 23.2%가 유료다. 인터넷신문의 유료서비스율이 0.2%인 것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다.

불교계 잡지, 사보·회원지 전환

이같은 잡지계의 환경변화에 불교계 잡지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먼저 국내 대표서점인 교보문고에는 <불광> <선문화> <한국불교문화> <불교문예> 4종만이 입점된 상태였다. 교보문고 브랜드관리팀 김현정 씨는 "최근들어 불교잡지 입점이 점점 줄고 있다"고 말했다.

오프라인 변화와 함께 온라인의 변화도 일어나야 하지만 더디기만 하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불교계 잡지가 인터넷

<불광> 교계 최초 지령500호

잡지 발간 환경은 갈수록 열악 일반잡지는 '디지털화'에 몰두

고령독자층 불교계, 한계 직면

회원지·사보 전환 트렌드 뚜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유료화를 실시하는 곳은 전무했다. <불교문화>가 불교계 최초로 디지털 애플리케이션을 선보였지만 이조차 무료다.

불교잡지의 디지털 유료화가 어려운 이유는 운영주체 대부분이 비영리인 사찰이나 단체라는 점이다.

고영인 <불교문화> 편집장은 "비영리 홍보가 주된 역할이기에 애플리케이션 개발부터 유료화를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 독자층이 인터넷이나 디지털화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란 점도 불교잡지계가 디지털 유료화를 주저하게 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갤럽이 2015년 발표한 '한국인의 종교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불자들은 50대 이상에 포진돼있다. (50대 이상 67%, 29세 미만 10%)

이런 상황에서 불교계 잡지는 사보나 기관홍보지 등으로 점차 전환되고 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정기간행물에 등록된 불교계 잡지는 27개다. 그 중 대표로 꼽히는 해인사 <해인>, 운문사 <운문>, 선학원 <선원>, 구룡사 <굿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 <불교평론> 등은 모두 사찰이나 종단 스님들이 발간 주체로 이에 의존하고 있다. 대한불교진흥원이 펴내는 <불교와 문화>, <맑은소리 맑은나라>, <법공양>등도 자체 운영된다.

이중 <불교와 문화>는 2010년 일반판 매지서 회원지로 전환해 회원에게 배포되고 있다. 일반잡지 성격의 봉은사 <관전>도 2014년 사보 성격의 '봉은관전'으로 전환했다.

위영란 봉은사 홍보팀장은 "외주 제작되던 일반잡지 발간 당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됐다. 사보 전환 후 신도와의 소통 기회가 넓어지는 등 효과가 높다"고 긍정적인 효과를 밝혔다. 봉은사의 경우 2015년 봉은사 새 신도 중 남자신도가 17% 증가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포교미디어를 접하고 신도로 등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문제는 콘텐츠 가공

관계자들은 이런 불교 잡지계의 변화에 불자들에게 맞는 콘텐츠 확보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공양>을 펴내는 김현준 효림출판사 대표는 "아무래도 소식지나 홍보지 역할에 충실하다보면 시대흐름에 맞는 콘텐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일반인도 불교를 자연스럽게 접하는 전범차원에서도 콘텐츠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윤희 맑은소리맑은나라 대표도 "많은 잡지가 사보로 전환되었지만 독자층이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잡지 역할도 지켜야 한다. 불교 내에서만 머무르면 결국 불교 자체가 도태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동 불광 편집장은 "불교계에서 1차 콘텐츠 '불교'를 2차로 재가공하는 역량이 부족하다. 불교잡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역량 배양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우리 사회 밝힐 희망의 빛 온 누리에"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는 4월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불기 2560년 광화문 점등식'을 봉행하고,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에 따라 사회를 밝힐 것을 다짐했다. 이날 광화문광장을 밝힌 장엄등은 국보 제35호 화엄사 4사자 삼층석탑을 형상화 한 것으로 비천상을 사방에 세워 장엄함을 더했다. 글·사진=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원효 '판비량론' 미공개 부분 日서 발견

정재영 교수, 조사 결과 발표... 신라 각필도 나와

신라 고승 원효가 집필한 '판비량론' 미공개 부분으로 추정되는 종잇조각이 일본서 발견돼 주목을 끈다. 서지학자 정재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조각나 흩어져 있어 그동안 학계에 알려지지 않았던 판비량론 단간(斷簡) 9행은 지난달 도쿄 개인 소장자에게서 찾았다"고 4월 19일 밝혔다.

이번에 나온 판비량론 단간은 가로 14cm, 세로 27cm 크기의 초서체로 쓰였다. 단간의 1~5행은 판비량론 제6절 전반부이고, 6~9행은 다른 어떤 절의 후반부로서 서로 다른 두 부분을 접합했다. 또한 상아나 뾰족한 나무로 글자로 새긴 각필도 세 군데에서 확인됐다.

정 교수는 "일본 오타니 대학이 소장하고 있는 '판비량론'과 동일한 필사본

이다. 종이의 서체, 형태서지학적으로 일치해 오타니 대학본의 다른 부분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신라 각필이 확인된 것도 중요한 성과다. 정 교수는 "정 교수는 '이번에 확인한 각필은 글 이해를 돕기 위해 한문의 뜻이나 조사, 어미 등을 단 구결'이라면서 '일본 나라 도다이지(東大寺) 화엄경과 구결의 글자나 쓰는 방식이 같다'고 밝혔다.

내용이 이어지지 않는 다른 행을 배접한 것은 일본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봤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일본에는 글씨가 예쁜 책을 잘라서 표구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판비량론 글씨가 워낙 아름답기 때문에 조각조각 잘라 많은 사람이 나눠 가진 것으로 보인다"



원효 스님의 '판비량론' 미공개 부분 중 일부. 신라시대 각필의 흔적이 보인다. 흰색으로 표시된 것이 '뫼'로 보이는 각필이다. 사진제공=정재영 교수

고 설명했다.

한편, 판비량론은 원효가 55세 때인 671년에 저술한 책으로, 완본은 사라지고 전해지지 않는다. 현재 일본 교토 오타니 대학이 전체 1/8에 해당하는 3장 105행만 소장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중일불교대회, 10월 11일 중 '영파'서

3국 교류위 합의...설두사서 평화기원법회 예정

"천년을 이어온 법맥을 이어가자! 동북아 불교교류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한 제19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가 10월 11일부터 14일까지 중국 절강성 영파에서 열린다.

월 13일 중국 영파에서 중국불교협회,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의회와 함께 3국 교류위원회의를 열고 제19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 일정을 최종 합의했다.

이번 제19차 한중일대회는 설두사에 서의 '세계평화 기원대법회'와 천동선

사에서의 '3국 다도시연', 칠탑사·아육왕사 순례 등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교류위원회는 한중 불교수행체험 교류 개최 건도 한중일대회에서 추가 조율키로 했다.

이번 교류위원회회의에는 한국대표단 단장으로 종단협 사무총장 월도 스님, 중국대표단 단장으로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명성스님, 일본대표단 단장으로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의회 이사장 다케 카쿠호 스님 등이 참여했다. 노덕현 기자



사찰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 자동 연등 승강 장치 |



| 인등·영구위패 시공 |



만월등



정품 LED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산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공단등



보련기획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로 189번길 27

H·P 010-9446-1862 / 전화 031)526-2201~2
찬덕연등의 원천기술 및 제품생산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회사입니다.